

##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8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3.

발 의 자 : 박해철 · 박민규 · 이훈기  
박지원 · 이광희 · 최민희  
송옥주 · 김남희 · 문금주  
김정호 · 박희승 · 정태호  
이정문 · 임미애 · 맹성규  
허성무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, 고용보험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.

특히 청년층은 최초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직무 부적합, 조직문화 미적응, 경력 설계 전환 등 비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사례가 많지만,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에서 배제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
OECD 주요국은 자발적 이직자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적으로 실업급여를 허용하고 있으며,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임.

이에 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, 청

년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기능과 구직활동 촉진 역할의 강화를 통해 경제·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(안 제58조제2호가목).

법률 제 호

##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. 다만,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
제58조(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 격의 제한) 제40조에도 불구하 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 로 본다.	제58조(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 격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  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 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2. ----- ----- -----
가. <u>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</u> <u>위하여 이직한 경우</u>	가. <u>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</u> <u>위하여 이직한 경우. 다만,</u> <u>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</u> <u>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</u> <u>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</u> <u>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</u> <u>한하여 수급자격이 있는</u> <u>것으로 본다.</u>
나.·다. (생    략)	나.·다. (현행과 같음)